

숨은그림찾기 <141>



찾아보세요 다리미, 슬리퍼, 깔대기, A자, 못, 구두, 화살, 은행잎, 음료

교통경찰과의 대화

과속 단속에 걸린 아저씨가 있었다. 그가 딱지 끊는 중에 옆 차들이 더 과속으로 쌩쌩달리자 억울한 마음에 경찰관에게 하소연했다. "경찰관님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안 잡아요?" "저는 방죽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잡지 않습니다. 제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만 잡죠." "그럼 저를 방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주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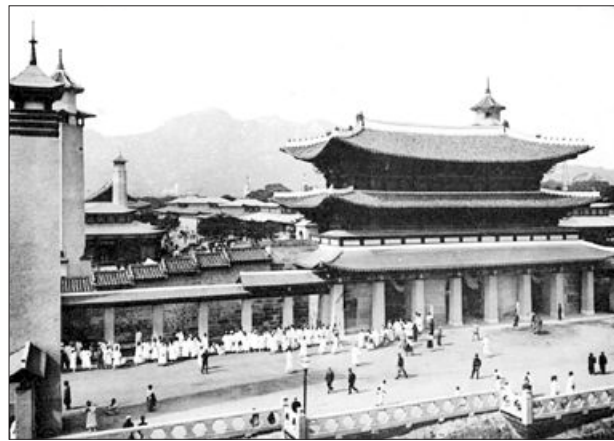
담배파이프, 열대어, 셔플록, 우유팩, 개구리, 양주잔, 슬리퍼, 병뚜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당첨자: 정인숙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범계사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29년 9월12일 대규모 조선박람회 개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1915년 시정 5년을 기념하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한 이후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에 이어 1925년 조선부업품공진회를 열었다. 1926년 일본은 조선총독부 건축을 통해 식민지배기구를 마련한 뒤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1929년 9월12일 경복궁 부지에서 청사 완공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조선박람회를 개최하였다.



1929년 조선총독부 주최로 조선박람회가 개최된 경복궁 일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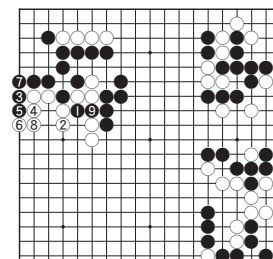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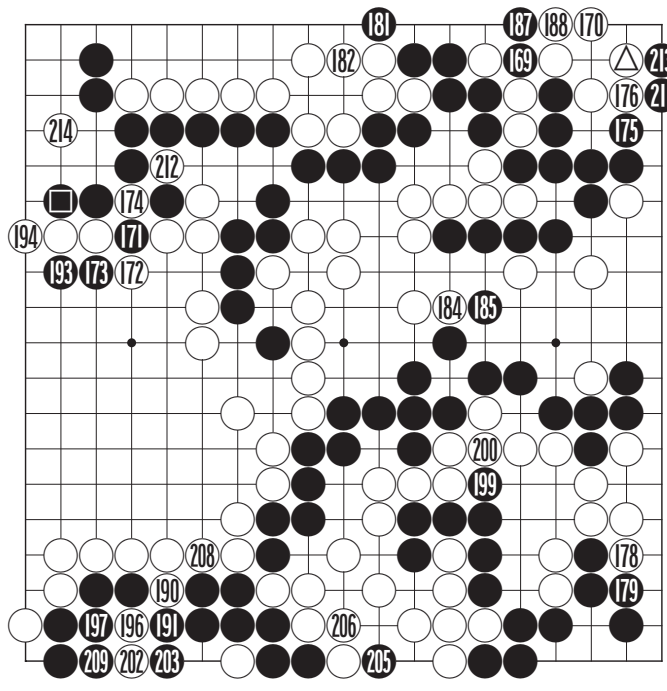
경복궁 부지는 당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남쪽은 총독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총독부 구내이고 북쪽은 근정전과 경회루 등의 옛 궁궐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경복궁 관람지역이었다. 당시 조선박람회는 광화문을 정문으로 하여 경복궁 관람지역 전체에서 개최되었다. 9월12일 개막한 조선박람회는 10월31일까지 이어졌고 박람회 전시장은 교통 토크관, 사법헌법 위생관, 기계 전기관 같은 주제관과 각국 및 시도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었다. 특별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형식으로 건축했으며 전라남도 특별관에는 특산물 판매와 함께 활동 사진 등이 전시됐다.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의 경우 식당도 함께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929년 열린 조선 박람회는 이전의 공진회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1915년 시정5주년을 기념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가 국내 행사였던 것에 반해 조선박람회는 일본, 만주 및 대만이

참가한 국제 박람회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조선 박람회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또한 박람회는 경제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식민지배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행사였던 조선 박람회 이후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이듬해에 만주국을 설립하는 등 조선을 지리적 중심으로 한 조(朝), 만(滿), 일(日) 무역을 통해 경제부흥을 노렸다. 일제에 의한 국제박람회 개최 이후 83만만인 오는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달 동안 개최되는 여수 박람회에는 주제관, 해양테마관, 국가관, 아쿠아리움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약 795만명의 인원이 찾아 14조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방비특대연

바꿔치기의 결과는?

개인전 준결승 11보 (169~214)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참고도> 백 1로 산 것이 20집 짜리로 반상최대의 곳이었다. 이곳을 차지해서는 백이 집으로 앞서게 되었다. 앞서 흑이 좌변을 2로 막은 수로는 무조건 귀를 잡아놓고 보아야 했던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역전을 눈앞에 뒀던 방재혁 5단이 마지막에 실축을 한 장면이다. 방 5

단은 상대가 좌변을 받아주기를 기대했으나 역전의 승부사인 김영수 5단은 귀가 잡히면 불리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제 좌변은 예정대로 흑 171로 찌르고 173으로 끊어 패가 발생했다. 이 패는 흑이 '참고도'처럼 흑 1 쪽에서 끊는 것이 정수다. 백 2로 받으면 3부터 7까지를 선수한 다음 9로 이어야 손해가 없다. 그러나 방재혁 5단은 이에 이곳에서 결판을 내자고 패를 키운다. 결국 수없는 패싸움 끝에 흑 211을 불침하여 우상귀와 바꿔치기가 이뤄졌는데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까.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대한주변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10일(음 8월 11일 癸丑)

Table of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te 9월 10일 (음 8월 11일 癸丑). It list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provides specific advice and lucky/unlucky numbers for each.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skin care.

굿모닝 잉글리쉬 <1143>

How come the presents aren't here yet? 왜 아직까지 선물용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 거지?
A: How come the presents aren't here yet?
B: I don't know. I remember ordering the present.
A: Did you pay for them?
B: Yeah, I sent a check.
A: 왜 아직까지 선물용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 거지?
B: 모르겠는데요. 분명 선물용 물품을 주문했는데요.
A: 돈은 지불했어?
B: 그럼요, 수표로 보냈습니다.
* How come ~ : 왜 ~
* be here = 도착하다
* remember ~ing = ~했던 것을 기억하다
* pay for ~ = ~의 값을 지불하다
* check : 수표

오하오우 니혼고 <1143>

オリンピックで、毎日(まいにち)がたのしいです
올림픽으로 매일 즐거워요
A: 最近(さいきん)はオリンピックで、毎日(まいにち)がたのしいです.
B:そうですね. 金(きん)メダルを取(と)ったらもっとうれいいですね.
A:そうですね. 私はバクテファン選手(せんしゅ)のファンになりました.
A: 요즘에는 올림픽으로 매일 즐거워요.
B: 그러게요, 금메달을 따면 더 기뻐요.
A: 맞아요, 저는 박태환선수의 팬이 되었어요.
最近(さいきん): 최근, 요즘
毎日(まいにち): 매일
うれい: 기쁘다

니하오 쑹구워 <220>

你们学校大吗? 너희들 학교는 크니?
A: 你们学校大吗?
nimen xuexiao da ma
니넨 쑹쑹학꾜우 님뎬
B: 大.
da
A: 学生多吗?
xuesheng duo ma
쑹쑹쑹뎬우 님뎬
B: 很多.
hen duo
넨뎬우
A: 너희들 학교는 크니?
B: 是.
A: 학생들은 많아요?
B: 매우 많습니디.
是 [shì] 매우
多 [duō] 많다

한자 이야기 <860>

일폭십한(一暴十寒)
한 일, 열 폭, 열 십, 잘 한
일폭십한(一暴十寒)은 하루 햇볕을 쬐고 열흘 춥다는 뜻으로,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단됨이 많음을 비유한다. '폭(暴)'은 '폭(曝)'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며, '일폭십한(一曝十寒)'이라고도 한다.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에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비유로 위장자를 풍자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 맹자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제나라 사람들은 제나라 임금이나 나라 일을 잘 볼보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그를 총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말하였다. 그러자 맹자가 말하길, "왕이 지혜롭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비록 천하에 쉽게 자라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하루 햇볕을 쬐고 열흘 차게 한다면 자라지 못한다. 내가 왕(王)을 밝히는 때가 적으니, 이것은 하루 동안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물러나오면 아침하는 자들이 잡히게 나가 밍는 날이 많으니, 이것은 열흘 동안 차가게 하는 것이다. 비록 썩어 나옴이 있을지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孟子, 告子上)
따라서 일을 끈기 있게 지속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함에 일정함이 없는 것을 '일폭십한'이라고 하였다. 또 일을 하다 마다 하여 성과가 없을 때도 사용한다.